

전북 군산형 상생형 일자리 가속도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 신규인력 83명 중 63명 지역인재로 채용·서민형 화물차 틈새시장 공략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아업인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연착륙하고 있다. 지난 6월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주)명신 군산공장에서 소상공인의 발이 될 '다나고 VAN'이 출시된 데 이어, 19일에는 중·대형 전기버스 등을 생산할 에디슨모터스(주) 군산공장이 완공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군산시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시설 견학을 하고 있다.

지역의 주력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해 특화된 경제구조와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에디슨모터스(주)는 이번 신규공장 건설 이외에도 앞으로 700억 원 정도를 투자, 차체와 전차 도장공장을 추가로 건설해 종합 완성차 공장으로 거듭날 계획이어서 친환경 전기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아업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주)는 올 8월 본격 생산을 위해 지난 6월 신규인력 83명을 채용, 이 중 63명을 지역주민으로 뽑아 상생형 일자리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양대노종이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 범위·규모의 경제 달성과 중복 투자 최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사업 개시 후 3차 연도까지 효과 총액 3,461억 원을 달성하려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성공 가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11조 4,671억원, 부가가치 2조 8,149억원, 취업유발 3만6,899

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한국 GM 군산공장이 차지하던 총생산 및 수출액 비중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동일 지표로 비교시 생산과 직접고용은 81%, 수출은 152%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더 희망적인 것은 이번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에 계기로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로 잃었던 일자리를 다시 회복, 그간 극심한 경제체질을 겪어야 했던 군산이 고용창출로 경제 재도약의 꿈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에디슨모터스(주)가 이

번에 신규 개발에 성공한 1톤급 전기트럭인 Smart T1.0은 기존 완성차 대기업인 현대·기아차가 출시하지 않는 전기 탑차를 생산하면서 서민형 화물차 틈새시장 공략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전북 군산형 참여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생산·고용에 들어감에 따라, 참여기업의 지역 조기 정착에 초점을 맞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 전기차 생산에 돌입하면서 창출되는 500여 명의 신규 채용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들의 사업 초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7월부터 '전북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사업(4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금관리위원회 및 갈등조정중재특별위원회 등의 체계를 갖추고, 선진형 임금체계를 구축해 오는 11월에는 공동교섭을 추진, 핵심 상생협약을 이행할 계획이다.

또, 원·하청간 복지 격차를 해소할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해 사전 제반 사항을 이행하고, 전기차 관련 국가공모사업과 R&D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산재 예방 체계적 관리 필요”

윤준병 의원,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및 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산업재해 예방 통합 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을 뿐, 근로감독을 비롯한 검사와 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업종·규모별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결과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입력·관리 과정에서 사업장의 정보가 일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

기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산재사고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극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행법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와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및 지역 등 세부적인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부가 산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온라인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개최

전북도는 제12회 '전북도 온라인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를 오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39일간 우체국(e-post)쇼핑몰과 연계해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마을기업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우체국 쇼핑몰(e-post)을 통한 '온라인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우수마을기업 제품 할인 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온라인 한가위 큰장터에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전북정보화마을협의회',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삼라장터지거래사업단',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8개 기관(단체), 126개 마을기업이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126개 우수마을기업이 준비한 314개 상품을 1만원대 실속 선



물세트에서 10만원대 최고급 홍삼세트까지 10~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9월 11일 10시부터는 전북도의 회 주차장에서 사과, 박대, 딱갈비, 돈까스, 한과, 재래김 등 8개 품목 1,900세트를 준비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직접 선보일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마을기업이 온라인 한가위 큰장터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도민들께서도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한상규 씨, 쿨스카프 2000개 전북자원봉사센터 기증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경기 인천 전북도민회 총연합회 전)사무총재 한상규씨로부터 2,000개의 쿨 스카프를 19일 기증받았다.

이번 쿨스카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종사자와 자원봉사자의 두위를 식혀주기 위한 것으로, 연일 '코로나19'로 인해 최일선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후서기 무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쿨스카프를 후원한 한상규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고향에 대한 사

랑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특히 예방접종센터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어 큰 보람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자원봉사센터와 14개 시·군센터는 도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봉사자들을 투입해 접종절차 및 동선안내, 주차 및 인출구 안내, 예약확인 및 예진표 작성 지원활동 등 접종자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 행사 10월로 잠정 연기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10일~12일 개최 예정이던 '새만금 케이팝(K-pop) 페스티벌' 행사를 10월 29일~31일까지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 케이팝(K-pop) 페스티벌' 행사를 비대면 상황에서 현장감 있게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인 콘서트'로 기획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어 축제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홍지광 새만금개발청 문화·관광TF 팀장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이 코로나19로 연기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백신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감안해 10월 축제 개최가 가능하도록 민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변경된 행사일정, 프로그램 내용 등을 9월 중 공식누리집(www.kpopfestival.co.kr)에 게시 안내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 | |
|------------------------------------------------------------------------------------------------------|---------------------------------------------------------------------------------------------------------------------------------------------------------------------------------------------------------------------------------|------------------|
| 모 집 |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 상 담 |
|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 | |
|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 |
|  |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올림픽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
|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 | |
| 학교별 | 주요과정 | 지역별(자유선택) |
| 전주교육대학교 |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 전주, 임실, 완주 |
| 우석대학교 |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 전주, 완주, 진안 |
| 원광대학교(익산) |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 익산, 논산, 강경 |
| 군산대학교 | 스피치기법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 군산, 서현, 부안 |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 정읍, 고창 |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 남원, 장수, 순창 |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 김제, 부안 |
|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 |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